

신약 역사, 문학 및 신학

세션 15: 누가복음과 공관복음 문제의 결론

Ted Hildebrandt 박사

A. 기도 소개: 바리새인과 세리 [00:00-7:11]

A: AC 결합; 00:00-11:22; 기도에 대한 우화

오늘은 루크에 대한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는 중이고, 오늘은 루크에 대한 강의를 몇 분 안에 마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시놉틱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루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세 복음서는 시놉틱 복음서라고 불리며, 강의의 두 번째 부분에서 이를 살펴보고 비교 및 대조 분석을 할 것입니다. 그럼 루크의 책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놓친 것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누가복음에서 기도의 본질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신 여덟 번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기도를 찾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찾아볼 만한 복음서입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에서 여덟 번 기도하셨는데, 그 중 일곱 번은 이 복음서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에 대해 꽤 많은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것을 마태복음의 기도에 대한 말씀과 대조하고 싶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말씀은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일종의 자동판매기로 볼 것입니다. 동전을 넣고 레버를 당기면 사탕이 아래로 떨어지는 자판기 말입니다. 그들은 신에 대한 자판기 관점과 기도에 대한 자판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의 복잡성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태의 산상 설교에서 간단한 진술을 잡아내어 그것을 절대화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말했지만, 당신은 그 진술들을 절대화하는 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기도의 또 다른 측면을 제시하고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 싶고, 특히 살펴보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둘 다 누가복음 18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비유가 있으므로 기도에 대한 완전한 비유가 있습니다.

B. 기도에서의 겸손과 교만함 - 예수기도

첫 번째를 읽어 보겠습니다 . 이것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8:9에 있는 “자기의 의로움을 확신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알보는 자들에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비유를 설정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확신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알봅니다. 보세요, 당신은 이미 대조를 볼 수 있고 그런 종류의 오만함과 동료에 대한 알보는 것이 어떻게 기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서 시작해서 그것을 취해서 기도로 바꿀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일어나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강도나 악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사람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는 "저는 강도나 악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여 기뻐합니다"라고 경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일반적으로 말한 다음 훨씬 더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고 나서 이 바리새인은 "또는 심지어 이 세리와의 같으니라"로 돌아섭니다. 이제 그는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즉 이 세리에게: 저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제가 얻은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다른 모든 사람과 비교하고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바쳤다고 하나님께 자랑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데,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종교 개념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금식이 종교의 일부였고 그들은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바쳤습니다.

이제 그것은 바뀌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간음하는 자, 살인자, 그리고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리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사람들 앞에 있고 가까이 있고 사람들 앞에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리는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않고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람들이 예수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저는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매우 짧은 기도이고,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 숨을 내쉬며 내쉬는 일종의 호흡 기도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 기도입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다른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이 세리는 그와 하나님 사이에서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져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흥미로운 점은 기도에는 몇 가지 도덕적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몇 가지 도덕적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세리는 “하나님,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자신을 낮추었고, 의롭다고 여겨졌습니다. 의롭다는 단어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한 방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졌습니다. 바리새인은 모든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그 자세, 그 겸손한 자세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원하는 정말 중요한 자세입니다. 오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줄짜리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는 사람들이 자주, 자주, 매일, 매시간, 실제로 매분 기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어가 있다면 말입니다. 겸손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조건지우는 사람의 성격적 특성으로서의 교만함과 대조되는 일종의 기초입니다.

다. 기도의 끈기: 끈기 있는 과부 [7:11-11:22]

이제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여자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것입니다. 여자는 불의한 재판관이며 이것은 누가복음 18장의 또 다른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이것으로 시작하고 우리는 그것을 읽어 볼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보여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기도에 대한 끈기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여러 지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는 당신의 마음을 아시므로 한 번 이상

그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헛된 중얼거림이 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반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비유를 들려줄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돌보지도 않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과부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계속 그에게 와서 간청했습니다.” 누가는 다시 과부를 언급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누가가 과부를 언급하고 외동아이를 언급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여기 과부가 있습니다. 그 문화권에서 소외된 사람, 그 문화권에서 궁핍한 사람이 재판관에게 다가갑니다. 재판관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재판관은 과부, 고아, 아버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외국인을 위해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사회에서 정의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과부가 재판관 앞에 서 있습니다. 재판관은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낮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그녀는 이 재판관에게 왔지만 그는 하나님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다.

“ 그리고 그 마을에 과부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계속 그에게 와서

‘내 적대자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이야기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녀가 언급한 이 불의는 무엇이었고, 이 적대자는 그녀에게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비유는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작고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비유는 이야기이고 요점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그 지점을 향해 있으므로 우리는 불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얼마 동안 거절했지만 마침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지만 이 과부가 계속 나를 괴롭히므로 그녀가 정의를 받게 하여 결국 그녀가 와서 나를 지치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비유: 그런 다음 주님은 “불의한 자의 말을 들어라, 재판장이여,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게 정의를 베풀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 돌아와 밤낮으로 부르짖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가 그들을 계속 미루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그들이 빨리 정의를 받게 하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땅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다음 갑자기 비유의 끝에서 **종말**, 마지막 날로 넘어갑니다. “인자가 올 때에 땅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거기에는 흥미로운 도약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종말론적인, “그 마지막 날에”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하고, 그 정의를 마지막 날들과 연관시킵니다.

다. 기도의 끈기: 바울과 시편 [11:22-14:09]

B: DF **결합**; 11:22-19:34; **기도** Pt 2

그래서 이것은 기도에 대한 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같은 것을 기도하고 같은 것을 계속해서 구하고 기본적으로 항상 기도해야 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겻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이 “글쎄요, 우리는 같은 것을 계속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겻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세 번 떠나가셔서 세 번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당신의 뜻이라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그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슬픔의 잔. 유다가 그에게 올 것이고, 그는 그것을 위해 세 번 기도하셨고, 그런 다음 유다가 와서 그를 배반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의 육체에 박힌 가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육체에 박힌 가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많은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에 박힌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 번이나 “아버지, 이것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끈기 있게 기도한다는 개념은 성경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무언가를 위해 세 번 기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무언가를 위해 세 번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시편도, 제가 말씀드리자면, 시편은 대체로 하나님께 부르는 기도의 책임입니다. 그 시편들은 이스라엘의 축제와 절기 때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하고 기도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중 많은 곳에서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우리 중 일부는 거의 매일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놀라운 것들이고 기도는 이것들에 대한 우리의 대화를 계속합니다.

저는 그것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화가 아니라 일종의 평행선과 같습니다. 제 손자 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에 자전거를 받고 아내에게 와서 크리스마스에 자전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아내와 상호작용할 때마다 가족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계없이 “오, 물론, 크리스마스에 자전거를 원해요. 자전거가 정말 필요해요. 크리스마스에 자전거를 받았어요? 어떤 종류의 자전거를 주셨어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항상 그 질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의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정말 그것을 원했고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에 이 자전거에 대해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조부모와 소통할 때, 이 경우에는 “이 자전거는 어디에 있나요? 크리스마스에 자전거를 줄 수 있나요?”와 같았습니다. 그런 다음 반복해서 그렇게 했고 물론 우리는 산타클로스가 그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몰랐지만 그는 아마도 그 해에 자전거를 받았을 것입니다.

마. 중요한 때에 기도하다 - 아프가니스탄의 한 아들 [14:09-16:35]

이제, 조금 더 내려가 봅시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저에게 흥미로운 일입니다. 사실 제 아들이 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종 고든 칼리지에서 일어나는 일과 학생들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기도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문제가 있고, 어떤 아이는 발이 부러졌고, 다른 아이들은 문화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문화에 적응하는 데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른 아이들은 언어에 문제가 있고 언어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른 아이들은 온 가족과의 관계와 고든에서의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게임에 대한 스킨이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관찮을 것이라는 식의 일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 위해 기도합니다.

해병인 제 아들은 아프가니스탄에 갔고 이라크에 있을 때 - 몇 년 전에 이라크에 처음 갔는데 - 그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 갔을 때는 정말 심해졌습니다. 부모로서 무력감을 느낄 때, 보통 부모의 역할은, 특히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호할 수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통제할 수 없고 사람이 총에 맞고 전화로 통화하면 그가 "우리는 매일 총에 맞아요"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의 친구들이 실제로 죽임을 당하고 [Twig] 다치고 [Rayaz] 다치고 [Hadley]와 다른 사람들 [Bunches]이 다쳤고 그가 죽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무력감에서 기도합니다. 신이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법을 배웁니다. 구약성서에서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 50명 있다면 그 도시를 살려주겠느냐고 물물교환을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만약 40명, 30명, 10명이라면... 도시를 살려주시겠어요? 저는 "하나님, 그 사람이든 저든, 그 사람 대신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는 늙었고 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라고 말하며 똑같은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당신은 기도하고, 간청하고, 간청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합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F. 중요한 때에 기도하기-아픈 아이들과 박해 [16:35-19:34]

그래서 그 수준의 기도가 일어나고, 당신이 기도한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제 친구 브라이언 키니가 있는데,

베이커 북하우스에서 일하고, 브라이언은 베이커 북하우스 밖에서 일하고, 저는 그를 몇 년 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그의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고, 5, 6 살인 그의 아들이 백혈병, 암, 이런 종류의 병에 걸려 죽음의 직전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지금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고, 브라이언 키니의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의사들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성공했고, 완치되었습니다. 그는 괜찮아 보였고 백혈병은 지나갔고, 그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정말 신나는 일이었고, 우리는 아마도 1년 동안 그를 위해 기도했고, 이 어린 소년을 위해 기도했고, 신은 그의 목숨을 구해주셨고,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끔찍한 질병에 걸리면 평소와는 다른 입장에 서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뭔가를 기도하다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생기지만, 갑자기 기도하게 되면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제 딸은 지금 남편이 있는데, 그의 귀 바로 안쪽 뇌에 뇌종양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청력의 일부를 잃었고 그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면 변호사이기 때문에 듣지 말아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는 이 종양이 있고 그들은 신경 주위에 있고 얼굴의 절반을 마비시킬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토론과 기도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기적으로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에는 이란에서 기독교 신자이자 목사였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이슬람에서 개종했고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개종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당신은 당신의 신앙을 부인하거나 죽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고 이제 큰 질문은 그들이 그를 죽였는지 여부입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런 종류의 일을 겪고 이 남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고 신앙을 위해 희생되고 순교자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21세기, 21세기에 그는 신앙을 위해 순교자로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뿐이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큰 일이고 누가복음 18장은 정말 좋습니다. 거기에는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비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G. 에마오로 가는 길: 예수의 변장과 제자들의 소망 [19:34-23:15]

C: Combine GI; 19:34-29:23; Emmaus Rd. OT 사용

여기 , 누가복음에서 제가 다루고 싶었던 또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에마오로 가는 길은 유명한 이야기인데,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생각하며 모두들 정말 낙담합니다. 사흘 후에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가 나타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요한에 나올 때 토마스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아직 그를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혼자 걸어 나오는 에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있었고 부활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에마오로 가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7마일 떨어진 곳인데, 그들은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에마오로 가는 길을 걸을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오래된 로마 도로입니다. 로마인들은 제국 전역에 도로를 건설했고 이 도로들은 너무나 좋아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중 많은 도로는 움푹 들어간 곳이 없고 돌판으로 만들어져 정말 놀라운 도로 구조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입니다. “같은 날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7마일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 글썬,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 부활에

대한 소문입니다 - “그들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지만 그들은 그것이 예수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무언가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가 후드티를 입고 있거나 무언가를 했을 수도 있고,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걸어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서서 얼굴을 숙인 채 여전히 예수께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인 클레오파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사람 중에 요즘에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는 사람이 당신뿐이냐?’ ‘무슨 일들이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무슨 일이야”와 같은 것으로,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예수에 대해 생각하는 바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이고, 그는 그들에게 “무슨 일인가?”라고 묻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에 관하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우리 관원들은 그를 넘겨 사형을 선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갈 사람이라고 바랐습니다.”-- 이제 그들의 희망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정말 깔끔한 구절인데, 왜냐하면 여기 두 유대인이 있고,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 가진 희망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이 설명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는 사람이라고 바랐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다스리고, 로마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다윗의 아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여인들 중 몇몇이” - 이제 그는 몇 가지 소문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 “게다가 우리 여인들 중 몇몇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아침 일찍 무덤에 갔지만 그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와서 그가 살아 있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 다시 이 여인들은 이것을 보고하지만 그들은 보고를 들었지만 그것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시신은 사라졌고, 이 천사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

H. 에마오로 가는 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다 [23:15-26:50]

그런데 누가복음의 시작 부분에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누가복음의 시작 부분에 누가 등장하나요?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탄생 때 나타나 *Gloria in excelsis* 를 부릅니다. *deo* 와 같은 것

. 시작에 영광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목자들에게 알렸고 이제 책의 끝에서 천사들이 보고합니다. 그들은 시신을 찾지 못했고, 와서 그가 살아 있다고 말하는 천사의 환상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 “그러자 우리 동료 중 몇 명이 무덤으로 가서 여자들이 말한 대로 보았지만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이제 여자들의 보고가 확인되었습니다. 시신은 사라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릅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 (이제 예수께서 개입합니다.) ’ 너희는 얼마나 어리석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 얼마나 더디냐.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께서는 선지자들로부터 메시아가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드시 다윗의 메시아만이 고난을 겪을 것이 아니라 요셉의 메시아도 요셉이 감옥에서 당한 것처럼 의롭게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는 고난을 겪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 53장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실 것입니다. 그는 도살당하는 어린 양과 같았고, 우리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양과 같은 우리는 모두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들어가려면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부터 시작하여,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강의였을까요. 예수님은 모세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가 오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에게 돌아가서 그리스도에 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마을에 다다르자,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듯이 행동하셨지만, 그들은 그를 강하게 권했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 가고, 날도 거의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과 함께 머물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

그래서 이제 그는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는 빵을 들고 감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예수님이 식탁에 앉아 그들과 함께 빵을 떼고 빵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생각나게 합니까? 이것은 성찬식 후, 주님의 만찬 후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빵을 떼셨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앉아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빵을 떼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고, 그는 빵을 들고 감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뜨여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물었습니다. ’ 그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습니까?’ ” “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아름답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열한

제자와 그들과 함께 모인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열한 사도와 그들과 함께 모인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들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참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두 사람은 길에서 일어난 일과 예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I. 구약성경 전체의 성취로서의 예수 [26:50-29:23]

이제 제가 언급하고 싶은 또 다른 구절이 하나 있는데, 24장 44절입니다. 그 설명을 들어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것이 이것이다.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구약의 삼중 정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정경입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토라; 그리고 선지자, 여호수아로 시작하는 전 선지서,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것들은 전 선지서라고 불립니다. 후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열두 사도.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이 있습니다. 구약의 다른 부분은 시편이 주요인 성서입니다. 시편은 방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구약의 삼중 구분을 언급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서 나에 대하여 이런 것들을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은 부활 후에 있고 예수님은 모세, 선지자, 성서, 즉 시편을 통해 그의 제자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경 연구에 대해 생각할 때 핵심 구절입니다. 구약은 이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 세 부분은 부활 후에 예수님에 의해 언급됩니다.

이것으로 루가 복음은 끝났습니다. 이제 루가 복음을 마쳤으니, 한 걸음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태 복음,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마가 복음, 놀라운 고난의 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루가 복음, 완벽한 사람, 그리스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성장합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에마오 길에서 건너뛰어 여기 다른 전체 섹션으로 건너뛰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가서 돌아오겠습니다.

나. 공관복음서와 초기 교회 [29:23-33:52]

D: JL을 결합합니다. 29:23-43:40; 복음서의 역사성

이제 공관복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관복음 문제란 무엇일까요? 공관복음 문제는 기본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비교할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유사점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복음서 저자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모두 같은 내용을 말할 때는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 복음서는 매우 유사해 보여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관복음은 “syn-optic”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어로 *Syn*은 “with”를 의미하고 *optic*은 op

tician, ophthalmology와 같으므로 공관복음은 “한 눈으로”를 의미합니다. 공관복음 문제는 이 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한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깊이 지각을 위해서는 두 눈이 필요하고 두 눈이 있어야 의자가 더 가까이 있고 방 뒤쪽의 시계가 훨씬 멀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눈이 있어서 깊이를 지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두 대의 카메라로 촬영하고 거의 우리 눈과 비슷한 비디오 카메라를 개발하여 비디오 카메라 작업에서도 3차원의 감각을 제공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꽤 멋진 일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한 가지 관점을 제공하고 요한은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공관복음서 사이에는 매우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관복음서들 사이에는 -- 그것들은 모두 같은 눈으로 보았지만 유사점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 공관 -시각적, 한 눈으로.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한 눈으로 예수를 봅니다.

흥미로운 점은 초기 교회가 마태, 마가, 누가의 차이점을 보았지만, 그것들을 합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 증인을 허용했고, 마태는 다르고 마가와 누가는 다릅니다. 그들은 매우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종류의 합의를 원한다면, 역사적으로 텍스트가 가단성이 있거나 텍스트가 가소성이 있다면, 사람들이 “아, 우리는 마태와 마가를

동의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그들을 조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차이점을 그대로 두었고, 초기 교회는 텍스트에 차이점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것은 이 문서의 역사성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교회가 이 문서들을 가지고 놓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서들은 매우 가단성이 있고, 그저 전설일 뿐이며, 만들어졌고, 서로 어울리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그런 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보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들은 주요 충돌이 있는 지점에서도 그들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들은 충돌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조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가 교정하고 조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차이점을 그대로 두었고, 우리는 잠시 후에 몇 가지 차이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본문의 신성함과 역사적 신뢰성에 대한 믿음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본문의 역사적 신뢰성;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역사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학은 역사에서 생겨납니다. 우리의 신학이 역사를 낳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실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고, 갈릴리에서 물 위를 걸으셨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는 실제 역사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신학은 역사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에 관해 이야기하는 세 복음서의 역사적 신뢰성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출애굽기와 오경이 매우 중요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집트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강한 팔과 강력한 손으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역사적으로 매우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물을 함께 압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들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더 잘 맞도록 조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각각 서 있게 두었습니다.

K. 복음이 전설이 아닌 이유: 목격자는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52-38:48]

왜 전설이 아닌가요? 좋아요. 복음서가 전설이 아닌 이유 중 하나는 마태, 마가, 누가라는 복음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아마도 서기 60년 이전에 썼고 누가는 바울이 죽기 전에 썼으며 바울은 서기 68년경에 죽었습니다. 누가는 아마도 사도 바울을 변호하기 위해 데오필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 누가는 아마도 65년 이전일 것이고 마태는 그보다 조금 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 서기 70년 이전에 썼습니다. 성전 파괴는 이 복음서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서기 70년 이전입니다. 글썬요, 예수가 죽은 지 30~4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30~40

년이면 많은 것이 바뀐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전설이 자라나기에 30년이나 40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할까요? 답은 '아니요' 입니다. 문제는 예수가 이런 일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목격자가 아직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격자 덕분에 그렇게까지 속일 수는 없는 거죠.

Sonya Weitz 라는 여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 그녀는 여기 Gordon College에 몇 년 동안 다녔습니다. Gordon College의 전설인 Marv Wilson 박사는 구약성경을 가르치는 뛰어난 교사이자 개인으로, 보스턴 북쪽 해안의 유대인 커뮤니티와 진정한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Sonya Weitz를 알게 되었고 , 그녀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입니다. 그녀는 1년에 한 번 일어나 Marv가 그녀를 데려오거나 Polly가 Sonya Weitz 를 데려 오면 그녀는 Gordon College에서 생존자가 되는 것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녀는 홀로코스트를 설명했고, 사실 저는 이것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녀는 홀로코스트를 설명했고 그녀와 그녀의 자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가족 중 나머지는 홀로코스트로 인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와 그녀의 자매는 주요 수용소 중 일부인 아우슈비츠나 비르켄발트 , 아니면 어느 곳이었는데 갔지만, 그녀는 여러 곳에 가서 기차를 타고 200명이 탄 기차칸에 탔고 기본적으로 완전히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홀로코스트를 설명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인가요? 사람들은 홀로코스트를 꾸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냐 비츠 처럼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아마디네자드 같은 미친 사람이 이란에서 일어나서 홀로코스트가 실제로 없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소냐 비츠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 아이젠하워 장군도 그 수용소를 해방하기 위해 들어갔을 때, 그는 사람들이 여기서 일어난 일을 절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일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찍고 그 모든 일을 기록했는데, 사람들이 절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친 사람들이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사람들의 허세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냐는 그곳에 있었고, 그녀는 목격자였고, 히틀러 치하의 강제 수용소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사실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녀에게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있었고, 그녀와 그녀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럼 문제 중 하나는 뭐죠? 문제는 소냐가 몇 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지금은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그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증인이 없고, 지금은 2012년이고 홀로코스트는 1940년대에 일어났으니 60년이나 70년 전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경우 , 여러분은 여전히 20년, 30년 , 40년 범위로 돌아가서 실제로 이 사건들을 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설을 위한 시간이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살아 계신 것을 본 사람이 500명이었습니다. 500명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12명과 여인들뿐만 아니라 에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난 두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말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증인이 필요할까요? 증인이 두 명이라면 꽤 괜찮습니다. 증인이 한 명이라면, 두 명이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한 번에 11명, 12명의 증인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500명의 증인이 있다면, 다른 장소, 다른 시간, 다른 배경에서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에마오로 가는 길에서, 그는 아마 전에 에마오로 가는 길을 걸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예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에마오로 가는 길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두 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L. 복음의 역사성에 대한 증거: 추악한 진실 [38:48-43:40]

이제 일이 은폐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 만약 당신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쓰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사도로서, 만약 당신이 열두 사람 중 한 명이라면, 사도들이 하는 모든 어리석은 일들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는 그들과 함께 배에 타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고, 예수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빵을 잊었기 때문에 그가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봐, 힌트를 얻어. 내가 빵을 원한다면, 어, 실례합니다. 방금 몇 명이나 먹었지? 방금 5000명에게 먹었지. 빵이 필요하다면 빵을 만들 수 있어. 하늘에서 온 만나.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온 만나를 주셨어. 하늘에서 온 만나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느 순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 글을 쓰고 사도 중 한 명이었다면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삭제하지 않겠습니까? 그 몇 년 동안 어울렸던 사람들, 지금은 복음을 전파하고 죽임을 당하는 과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를

폭로합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위를 높이고 싶어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사생아들과 어울리기보다는 막달라 마리아와 세리들. 당신은 그를 헤롯 과 가야바, 대제사장, 본디오 빌라도 와 함께 내세웠을 것이고 , 그를 고위 인사들과 어울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는 누구와 어울리나요? 그는 누구와 어울리나요? 이 세리들과 죄인들, 우리는 그들의 이름조차 많이 모르지만, 예수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명성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같은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좋은 유대인이라면, 모든 유대인들에게 불쾌감을 줄 것을 알면서도 왜 사마리아인을 특집으로 다루겠습니까? 그런데도 복음서는 계속해서 이것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는 사마리아인들과 어울렸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반드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인들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반대와 제자들의 불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의 제자들도 어떤 면에서는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이 와서 어느 시점에 예수를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야고보와 요셉,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와서 당신을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형제들은 다른 구절을 읽고,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들은 초막절에 올라가고, 그의 형제들은 “예수님,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을 왜 행하지 않으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으십니까?”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내레이터는 “그의 형제들이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이 기적을 행하십시오. 그들이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웅에 대한 역사를 쓰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은폐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초기 교회의 큰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한 기록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친구 베드로의 일을 건너뛰고, “그가 실수를 했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역사를 쓸 때 친구의 실수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내용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세 번,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입니다. 베드로는 그 일로 인해 나가서 울었습니다. 보통은 그런 일은 덮어두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서가 정확한 역사를 제공하고 좋은 일, 나쁜 일, 추한 일을 모두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추한 일들이 있고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이것은 실제 역사이고, 꾸며낸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상적이거나 전설화된 역사, 또는 신화를 만들어 예수를 신화로 만드는 신화적 역사가

아닙니다. 아니요, 그들은 당신에게 진짜 역사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신뢰성; Denver Seminary의 Craig Blomberg는 정말 좋은 책을 썼습니다. 복음서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한 4-500페이지 분량의 책입니다. 정말 비판적인 책입니다. 그는 복음서의 역사적 신뢰성을 자세히 살펴보고 확립합니다. Craig 블롬버그의 책, *복음서의 역사적 신뢰성*은 정말 읽어볼 만합니다.

M. 유사점: 공유된 광범위한 연대기 [43:40-45:47]

E: MO 결합; 43:40-53:47; **공관복음서 유사점, 1부**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공관복음서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유사점. 우리는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사점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므로 먼저 그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들은 꽤 쉬운 것들이지만 저는 그 중 일부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사점이 어느 수준에서 발생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광범위한 연대기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에는 이 광범위한 연대기적 틀이 있습니다. 예수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는 나사렛으로 갑니다. 나사렛은 그가 목수로서 아버지 요셉 밑에서 자란 곳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초기 사역이지 사역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천 명을 먹이시고 산상 설교를 하시고 나병환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께서 사역을 많이 하신 곳이었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 그것은 종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수난주간 동안 그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것이고 예루살렘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죽음을 겪었고, 사흘 후에 그의 부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광범위한 역사적 틀입니다. 나사렛에서 갈릴리까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기적과 비유와 가르침을 전하고, 마지막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 수난주간을 보내며 예루살렘을 치고 ,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묻히고, 사흘 후에 죽음에서 부활합니다. 모든 복음서가 같은 광범위한 연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기록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 광범위한 연대기에 동의합니다.

N. 유사점: 마비 환자를 고치다 [45:47-49:44]

많은 구절의 일부 표현은 정확히 동일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과 마비 환자의 기적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마비 환자는; 제가 이 이야기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집에 계시고 거기에는 군중이 있고 이 사람들이 불구가 된 사람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네 명의 친구가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네 명의 친구가 그를 매트에 실어 나르고 있고 군중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불구가 된 사람을 데려와서 예수께서 그를 고쳐 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데려가야 합니다.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 문화권에서는 지붕이 평평했고, 기본적으로 진흙과 나뭇가지와 그런 것들로 만든 평평한 지붕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뉴잉글랜드에서와 같이 좋은 널빤지와 가파른 지붕이 없었습니다. 평평한 지붕입니다. 그들은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 앉아 계시고 그 위에 온갖 흙이 떨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지붕을 뚫고 그 남자를 예수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는 그 남자를 바라보았고 모두가 예수가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결코 당신이 기대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는 그 남자를 바라보며 "네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겁에 질려 "와,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어? 하느님 외에는.”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요점이었고, 예수는 “네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네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자리를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그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여기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자는 일어나서 걸어 나갑니다. 그런데 작은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 남자가 불구자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가 어떻게 불구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가족의 모든 상황은 모르겠지만, 작은 마을에서는 모두가 모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자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마비 환자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제가 그 단어의 정확한 특정 본문을 살펴보고 싶은데, 이것은 마태복음 9:6이고, “너희로 하여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끊기다] “너희로 하여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끊고, 그는 끊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는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직후에 마비 환자에게 돌아서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끊김이 있고, 저는 그가 군중에게 말하는 것을 끊고 마비 환자에게 돌아서는 그 끊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하고, 다시 정확히 그 지점에서 “그는 마비 환자에게 돌아서서 ‘너의 자리를 들고 여기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단은 정확히 같은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유사점과 누가복음 5:24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중단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마비 환자에게 돌아서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모두 예수가 정확히 같은 지점에서 중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들이 공관복음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전하고, 이 이야기들 중 많은 것들이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전합니다. 단어가 정확히 같고, 군중에게 말하고 마비 환자에게로 돌아서는 움직임도 정확히 같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곳에서 일어난 방식으로 세 가지 복음서가 검증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것이 하나의 유사점입니다.

ㄱ. 유사점: 세례자 요한 [49:44-53:47]

또 다른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인용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기 선구자이며, 오실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것을 받는다면, 이것은 메시아의 오심을 읽는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레 요한은 이 구약성경 인용문이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광야에서 부르는 자의 소리'로 말씀하신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를 위해 곧은 길을 만드십시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부르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요한은 어디에서 놀았습니까? 요한은 광야에서 놀았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고 광야에서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사야 40장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부르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 있고, 그는 무엇을 부르나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를 위해 곧은 길을 만드십시오." 이것은 LXX, 즉 칠십인역에서 나온 인용문입니다. 칠십인역은 기원전 200-100년경에 번역된 구약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입니다. 저는 LXX가 정확히 언제 번역되었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루고 싶지 않지만 기원전 200-100년경입니다. 칠십인역은 사실 조금 더 일찍 번역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3, 마가복음 1:3, 누가복음 3:4를 주목하세요. 기본적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같은 장에 3:4와 3:3이 있습니다. 이 인용문이 있고, 모두 칠십인역에서 인용했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구약성서에서 마소라 본문에서 인용한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소라 본문[MT]은 무엇입니까? 마소라 본문은 히브리어 구약성서, 또는 우리가 MT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MT는 마소라 본문으로,

마소라 학자들로 알려진 서기관 그룹이 보존한 히브리어 본문입니다 . 그것은 많은 구약 학자들이 읽는 법을 배우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들은 또한 칠십인역을 읽고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리스어를 읽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기원전 200년경에 번역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어떻게 번역 작업을 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 기자들이 그것을 인용할 때, 그들은 모두 칠십인역을 인용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두 히브리어 본문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3에서 이 구절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광야에서 부르는 소리, 여호와를 위하여 큰길을 예비하라.” 여기서 차이점을 보십니까? 이것은 “부르는 소리”라고 말하고, 그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 광야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광야에 있을 여호와의 길입니다. 하지만 칠십인역에서 보면 “광야에서 부르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경우, 칠십인역에서는 부르는 사람, 광야에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마소라 본문에서는 그저 “부르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부르나요? “광야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라.” 그것은 광야에 있는 여호와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경우에서 말하는 사람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라”라고 부릅니다. 다른 경우에는 “광야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길은 사막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칠십인역과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 사이의 분명히 다른 독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세 복음서, 즉 공관복음서가 모두 칠십인역으로 전환하고 그 본문의 히브리어 독해를 모두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복음서가 모두 그것에 동의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단어 하나하나, 단어 완벽,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인용하자면--단어 완벽합니다. 이것들은 정확히 단어 하나하나의 종류의 것인, 매우 유사한 놀라운 유사점입니다.

P. 유사점: 복음서를 비교하는 웨스트콧의 백분율 [53:47-57:30]

F. PQ 결합; 53:47-59:29; 공관복음 유사점

이제 저는 Westcott이라는 사람과 함께 작업하고 싶은데, 그는 비교를 보여주었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비슷한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다른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류의 차트를 만들고,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얼마나 비슷한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다른 복음서와의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유사점은 겹칠 때, 비슷할 때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의 7%는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7%는 다른 복음서와 다릅니다. 즉 마가복음을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잃어버릴까요? 약 7%를 잃게 될 겁니다. 즉 마가복음의 93%가 다른

복음서에서 발견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약 학자들이 이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논쟁도 있고, 많은 신약 학자들이 마가복음의 우선 순위를 고수합니다. 다시 말해 마가복음이 먼저 나왔고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이용했습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마가복음의 우선순위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 그 중 하나입니다. 마가복음의 많은 부분이 다른 복음서에서 발견되고, 그 중 93%가 마태와 누가복음에서 발췌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마가복음의 대부분은 다른 곳에서 발견됩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42%는 그에게만 고유하고, 마태복음의 58%는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58%를 공유합니다. 42%는 고유합니다. 그러니까 42%는 꽤 많습니다. 좋아요, 보세요, 올리브산 설교와 다른 것들은 마태복음에서 고유합니다.

누가복음, 이게 점점 더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죠. 누가복음은 이제 거의 60%가 고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1%는 기본적으로 다른 복음서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약 60/40입니다. 60%는 고유하지만 40%는 겹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상당 부분이 다른 곳에서 발견되고, 그래서 이 세 복음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서로 매우 유사합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요.

이제 요한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공관복음서 중 하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서입니다. 요한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은 92%가 독특합니다. 알겠어요? 이 세 복음서와 비교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 세 복음서가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고 요한의 92%가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8%만이 다른 세 복음서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실 흥미로운 점은 요한과 마가의 역할이 거의 반대라는 것입니다. . 요한의 8%는 다른 복음서와 비슷하지만 마가의 7%만이 그에게 독특합니다. 마가는 7%에 불과하고 마가의 대부분은 다른 곳에서 발견되므로 거의 앞뒤로 뒤집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매우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서이고, 이 복음서, 요한은, 글썬요, 요한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많은 중복이 있는지를 비교한 것이고, 마크와는 중복이 많고, 존과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Q. 유사점: 동시적 중복 [57:30-59:29]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벤 다이어그램을 잊으려고 했을 테지만,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데 실제로 꽤 유용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의 50절만 고유한 반면, 마태복음은 280절, 누가복음은 500절이 고유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세 복음서 중에서 누가가 가장 고유합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고유하지 않고, 마태복음은 자체적으로 상당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480개의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겹치는 480개의 세그먼트입니다. 세 복음서 모두 이 480개의 유사점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겹칩니다.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사이에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사이에 약 180개의 세그먼트가 공유되지만,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밖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사이에만 공유되고, 180개의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밖에서 약 20개만 고유하게 공유하므로, 이것은 전혀 많지 않습니다. 누가는 마가와 20개의 부분을 공유하고, 마태와 누가는 170개의 단위를 공유하지만 마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담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다른 곳에서 발견되며, 50개의 구절 또는 50개의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제 170개가 마태와 누가 사이에 공유되지만 마가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170개를 "Q"라고 부릅니다. 잠시 후에 Q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Quelle* [Q], 즉 공유되는 "소스"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와 누가가 공유하지만 마가에는 없는 자료인 Q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가 밖에 있고 그것을 Q 소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태와 누가에는 있지만 마가에는 없다면, 마태와 누가는 그 Q 소스를 사용하여 170개의 부분을 증명했습니다.

ㄴ. 공관복음서의 차이점: 그리스도 시험의 순서 [59:29-63:01]

G: RS 결합; 59:29-68:15; 공관복음서의 차이점, 1부

이제 공관복음서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유사점에 대해 이야기했고, 유사점은 보통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사점을 보여줄 때 모두가 유사점에 동의하지만, 차이점 때문에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공관복음서 문제라고 합니다. 차이점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차이점 중 하나는 사건의 순서입니다. 사건의 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유혹을 기억하십니까? 거의 모든 복음서에서 그리스도는 바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를 광야로 데려가서 광야에서 사십 일 사십 밤을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유혹의 연속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복음서 모두 사탄이 예수께 다가와서 “이봐, 배고프니?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라.” 예수께서는 신명기를 인용하십니다. 사실 사탄이 그를 유혹한 세 번 모두, 그는 신명기 4장에서 11장, 아니면 8장, 신명기 그 구절에서 그런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두 복음서 기자는 모두 돌에서 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 맞습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사탄이 예수를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기본적으로 “예수님, 시편에 네가 몸을 던지면 그의 천사들이 너를 받쳐 줄 것이요,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돌아서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대답은 다시 신명기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사탄이 여기서 성경을 인용한 것은, 우리가 이전에 언급했듯이, 사탄은 실제로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는 “정상, 정상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 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반면에 누가는 왕국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를 두 번째 유혹으로 산으로 데려가 산 꼭대기까지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고 “만약 절하고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는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신명기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있는 왕국은 세상의 왕국을 보여주고 경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 세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유혹,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바뀌거나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고 “만약 절하고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왕국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아니,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왕국으로 끝맺는 반면 누가복음은 정점 점프로

끝맺습니다. “이 봉우리에서 뛰어내리면 그의 천사들이 너를 들어올릴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을 때, 2번과 3번이 뒤집혔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실제 순서일까요? 실제 역사적 순서는 무엇일까요?

S. 이야기를 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3:1-68:15]

이제 다른 것을 여기에 추가하고 싶습니다. 작가가 진술을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유혹의 순서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환경에 맞추었습니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스토리텔링을 좋아합니까?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청중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고든 칼리지에 그레이엄 버드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클래식 피아노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는 놀라운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는 또한 고전 학자이며 호머와 그리스어를 연구하고 언어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도 관여합니다. 그는 일종의 르네상스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데, 그는 앉아서 그가 재즈라고 부르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재즈에 대한 이런 은유를 가지고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같은 노래를 하나 들어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가, 나 같은 놈을 구했구나.”

그래서 그는 그 노래를 연주할 것이고, 그가 하는 일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를 고전적인 스타일로 연주하는 것입니다.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스타일로, 갑자기 여러분은 그가 하는 것을 듣고, 그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고, 또한 그가 그것을 고전적인 곡처럼 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마치 퍼스트 침례교회 연주곡인 것처럼 바꿔서 연주할 것입니다. 그는 피아노를 두드리기 시작하고 침례교회의 맥락에서처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다시 바뀌고, 클래식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가스펠 곡으로 연주되었을 때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갑자기 재즈로 바꾸죠. 마치 뉴올리언스에 있는 것과 같고, 이 사람이 거리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을 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즈라는 것을 알아차리셨나요? 재즈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리죠. 하지만 그 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것도 알아차리죠. 그 곡들 하나하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하지만 완전히 다르게 연주되고, 클래식 청중에게는 이렇게 연주하고, 가스펠 청중에게는 이렇게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뉴올리언스에 있다면, 그는 이렇게 연주할 겁니다. 같은 곡이지만, 다른 곡이에요.

많이 가르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제가 훨씬 어렸을 때 테네시 주 브리스톨에 있는 성경 대학에서 가르쳤고, 목사로서 다섯 개의

다른 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교회가 있었고 매주 다른 교회로 가서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순회 설교자와 같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은 설교문을 개발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설교하고, 두 번째 ,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에서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세 번째에는 세 번째 교회, 네 번째, 다섯 번째 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 다섯 주 연속으로 같은 설교를 하고 다섯 개의 다른 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 다섯 개의 다른 청중이 있었습니다.

이제 설교할 때마다 같은 설교였을까요? 다섯 번 모두 같은 설교였지만 , 제 아내는 저와 함께 여러 교회에 갔고, 항상 처음 설교할 때는 꽤 끔찍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나빠요. 아내는 "처음에는 정말 엉망이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에는 훨씬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에는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에는 정말 다듬었고 정말 잘 설교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는 특히 다섯 번째에는 "당신이 자신의 설교에 지루함을 느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일종의 절정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끔찍했지만 점점 좋아졌고 마침내 제대로 했고, 제대로 한 후에는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섯 개의 다른 교회에서 같은 설교를 했는데, 제가 정확히 같은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었나요? 어떤 경우는 있지만, 각 교회마다 이야기가 약간씩 달랐나요? 약간씩 조정이 있었나요? 어떤 경우는 청중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졌고, 어떤 경우는 설교를 다른 수준으로 만들어서 다시 편집한 것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왔는데,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고, 그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한 번은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모두가 웃고 바닥에 구르는데, 그는 놀라운 이야기꾼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정말 유머러스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떠나고 그는 제 아내와 저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 그는 우리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말합니다. 그는 정말, 정말 무거운 내용을 던지고, 같은 이야기지만 청중에게 다른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의 유혹의 순서 [68:15-72:13]

H: TX 결합; 68:15-87:22; 시놉틱 차이점 2부

여기서 여러분이 가진 것은, 그럼, 이것을 살펴보죠. 마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마태는 그리스도의 유혹을 돌로 빵을 만드는 것으로 가져갔습니다. 왜 그들은 거기서 시작했을까요?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이 먹을 것을 원하는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돌로 빵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마태가 왕국으로 끝나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에게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고, "엎드려 나를 경배하라." 마태복음 4장, 이것들은 모든 왕국이며 나를 경배하라. 마태복음 5장은 무엇으로 들어가나요? 마태복음 5장은 행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니라.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4장 이후에 산상수훈, 왕국에 대한 가르침, 산상수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리스도의 유혹을 이 세상의 왕국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왕국의 가르침을 세웁니다. "엎드려 나를 경배하라." 이제 예수께서는 그의 왕국에 대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의 왕국은 산상 수훈에서 발견되며, 그가 왕국 생활을 설명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는, 저는 모릅니다. 그의 원래 순서를 바꾸었고,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어떻게 그것을 이어갈지에 대한 서사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산상 수훈에서 5, 6, 7장에서 왕국에 대해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세 가지 유혹은 왕국으로 끝나고 예수께서 왕국에 대해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어때요? 사실 제가 이걸 처음 본 해인데 누가복음은 바위에서 빵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물론 예수께서 배고프셨기 때문에 왕국의 세계가 두 번째 세계로 제공되지만 성전의 꼭대기에 "정상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당신을 붙잡아 들어올릴 것이다.” 이런 내용은 처음 봤는데, 어떻게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 이어졌는지 궁금하네요. “누가복음은 이 정점에서 뛰어내리는 것으로 끝나는지 궁금하네요. 누가복음의 다음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네요.”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은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의 고향 사람들은 그를 거부했고 아마겟돈 계곡, 예스리엘 계곡을 내려다보는 절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를 나사렛에서 이 절벽으로 데려갔고 그를 절벽에서 던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벽에서 던져지거나 뛰어내릴 것이고, 정확히 이것이 정점인 방식대로 던져질 것입니다. “정상에 올라가 뛰어내려라. 그의 천사들이 너를 들어올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예수님이 절벽으로 끌려가 절벽에서 던져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가 이 정점 점프로 마무리한 이야기가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다음 이야기로 바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결론은 나사렛에 있는 그의 사람들이 그를 거부하고 그를 정점으로 데려갔고 그들은 그를 던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이것은 아름답게 만들어진 문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적합하게 만들고, 이야기와 이야기를 연결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다음 이야기로 흘러가고, 그들은 하나에서 다른 이야기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순서가 다릅니다. 순서가 다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각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순서는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요점이 아닙니다. 요점은 그리스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서의 차이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ㄱ. 십자가상의 제목의 변형 [72:13-75:13]

이제, 여기서 다른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용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용문의 차이점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머리 위에 있는 칭호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한 복음서를 꺼내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꺼내보면, 이 칭호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십자가 위에 예수에게 붙었다고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7:37에서 십자가 위의 칭호는 "이것은 유대인의 왕 예수이다"라고 말합니다. 좋아요, 예상하셨겠지만, "이것은 유대인의 왕 예수이다"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에게 붙은 칭호였습니다, 마태복음 27:37. 누가와 마가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가는 "이것은 예수이다"를 삭제하고 마가는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첫 번째 부분을 삭제하지만 "유대인의 왕"은 그대로 둡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가복음이 더 짧을 것이라고 예상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상당히 압축되고 짧아서 마가복음은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당신은 묻습니다: 그의 머리 위의 십자가에는 실제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머리 위의 칭호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마가는 “이것은 예수다”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위의 칭호에 있었던 내용의 인용이 다릅니다. 누가는 23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이것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태는 “이것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는 “이것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삭제됩니다.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세 가지 다른 독서가 있고 따라서 부활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므로 이 독서 중 어느 것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까?

이제, 당신은 “매튜가 가장 많은 것을 얻는 듯하니, 가장 큰 것을 골라서 요약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 요점은, 당신은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있는 제목에 대한 인용문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세 가지 다른 기록이 있으므로, 그것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잠깐만요, 힐데브란트, 요한은 어때요?”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이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셨나요? 물론, 그는 다릅니다! 요한은 예수의 머리 위의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글썄요, 그들은 모두 “유대인의 왕”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대인의 왕”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입니다”라고 적혀 있었나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요? 예수의 이름을 떨어뜨리고 “이것이 유대인의 왕입니다”라고 적었나요? 아니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나요? 예수의 머리 위의 십자가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네 가지 다른 판독이 있습니다.

V. 가능한 설명-요약과 번역 [75:13-79:00]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때때로 인용문이 있을 때, 그리고 제가 더 큰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때때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정확한 말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들은 때때로 자신의 말로 요약합니다. 레인에서 점심을 먹으러 갔다면, “필립스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거예요.”라고 말할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녀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고, 종종 자신의 말로 요약합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단어가 정확히 그가 말한 내용인 기술적인 인용문과 같은 인용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글썄요, 일부는 십자가의 칭호에 기본적으로 무엇이 적혀 있는지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매우 가능성이 높고, 사실 우리는 기록에서 십자가의 칭호가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리스어와 아람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 하나는 그리스어이고, 하나는 아람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언어로 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세 가지 다른 언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다른 언어로 세 가지 다른 칭호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 단어 그대로가 아니었고, 다른 언어로 다른 칭호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각 사람이 그 위에 있는 다른 언어 중 하나를 복사했고, 세 가지 다른 언어가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른 언어로 십자가에 대한 세 가지 다른 설명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성경에 빨간 글자 성경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언어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탈리타 koum* , 예수께서 어린 소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소녀야, 일어나." 예수께서는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약은 무엇으로 쓰여졌을까요? 우리의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있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있는 것은 그가 말씀하신 것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매우 가능하며, 번역 작업을 했다면 다른 번역자들이 다르게 번역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다르게 번역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람어로 가르치셨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신약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다른 언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정확한 인용문을 인용할 수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스페인어로 말씀한 다음 영어로 번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번역자들은 다르게 번역할 것입니다. 당신은, 파블로가 말하길, 당신은 스페인어로 그를 인용하지만 당신은 영어로 그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파블로는 실제로 “que pasa”라고 말했고 당신은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영어로 번역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 이걸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차이점 중 일부는 번역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일부는 다른 언어가 번역에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작가의 목적, 무언가를 통해 요점을 만들고 싶어하는 작가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에는 차이가 있고, 그걸 알아야 합니다.

W. 인용의 변형: 피터의 인용 [79:00- 83:08]

베드로의 인용문,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의 인용문,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베드로의 인용문을 다른 복음서에서 추적해 보면, 인용문에 또 다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용문에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고 말할 때, 자신의 친구들을 어떻게 인용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종종 여러분은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설교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의 다섯 가지 위대한 설교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의 다섯 가지 위대한 설교, 이 산상수훈을 읽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것을 읽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글썄요, 여러분이 그것을 소리 내어 읽는다면, 그리고 저의 그리스어 학생들이 그것을 그리스어로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면, 이 산상수훈을 읽는 데 아마 10분 정도 걸릴 겁니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셨을 때 설교가 10분 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설교하셨을 때, 10분보다 훨씬 더 길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마 30분, 1시간 동안 설교하셨을 겁니다. 그 사람들 중 일부는 옛날에 설교할 때 몇 시간 동안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10 분이 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10 분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가 주신 시간이나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읽고 있는 내용 중 일부를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에 있는 독서 자료들이요.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거예요. 유두고가 나오는데 , 바울이 설교하고, 바울이 터키 북서쪽의 트로아스에서 설교합니다. 바울이 설교하고,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길어서, 어떤 때는 이 수업처럼 설교가 너무 길어서 유두고 라는 사람이 창틀에서 잠이 들었는데, 바울의 설교 중에 잠이 들어서 창밖으로 떨어졌어요 . 바울이 나가서 그 사람을 죽음에서 일으켜야 했어요. 그 사람이 목이 부러졌거나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창밖으로 떨어진 그를 고쳐줬어요. 설교가 너무 길어서 그 사람이 지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예수님의 위대한 담론이 있을 때, 올리브산 담론은 두 장에 불과하고, 열두 제자를 보내는 담론은 한 장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얻는 것은 3분 분량의 요약, 또는 초록, 또는 이 설교의 요약으로, 아마 30분, 1시간 정도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만 얻었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말할 때, 인용문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는 변형된 표현이 나올 것입니다. 그들은 요약을 제공하고, 그들이 말한 것을 추상화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제 그는 말을 끊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마가는 더 짧습니다. 마가는 요점에 도달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니이다.” 그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끊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여기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가져와서 자신의 방식으로 함께 배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들이 정확한 인용문이라고 가정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인용문에는 변형된 차이가 있는데, 그 중 일부는 예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셨고 이것들은 다른 번역이라는 사실 때문일 수 있으며, 일부는 구성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니지만, 작가 마태, 마가, 누가는 각자 다른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가의 구성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그가 말한 것을 요약하고 그것을 다르게 요약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반드시 따옴표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몇 가지 다른 차이점입니다. 때로는 숫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28에서 그는 귀신 들린 자들에게 다가갑니다. 게레사에서 온 귀신 들린 자들은 몇 명입니까?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베고 있었고, 묘지에 있었고, 자신을 베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쇠사슬로 묶었고, 그는 쇠사슬을 끊었고, 아무도 그를 묶을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게레사의 귀신 들린 자가 두 명 있었고,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은 군대였고, 그들은 우리를 돼지 떼에 던져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돼지 떼와 함께 언덕을 내려가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는 게레사의 귀신 들린 자가 두 명 있습니다. 예수께서 두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숫자의 차이: 귀신들린 자들 [83:08- 85:07]

마가복음에 가면, 마가복음은 5장 2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예수께서 귀신 군단을 그에게서 쫓아내십니다. 예수께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두 명이나 한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게 요점이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세 명이나 네 명이나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두 명만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한 명만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밤에 파티나 다른 곳에 갔다가 나가서 마을에 가서 부분적으로 이야기하시나요? 이야기의 일부를 말하시나요, 아니면 전부 말하시나요? 글썄요, 부모님이 듣고 싶어할 만한 부분만 말하세요. 다른 부분은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질문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아니, 당신은 그들에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그저 그날 밤 일어난 모든 일을 그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곤경에 처하고 싶지 않아서, 뭐 그런 거요. 그래서 이야기의 일부만 말하는 거예요. 전체 이야기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X. 부분/전체 문제 [85:07-87:22]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부분/전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이야기의 일부를 말합니다. 두 남자가 있고, 다른 한 남자는 한 남자이고 그는 당신에게 전체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세 명이나 네 명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 명과 마크의 한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올해 한 반에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부모라도 부모가 항상 자녀에게 전체 이야기를 말하나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종종 부모는 자녀에게 이야기의 일부만 말하고, 그러면

자녀는 특정 상황에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지금 제 머릿속에서 논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보통--아내와 저는 결혼한 모든 사람들처럼 싸웁니다. 아내와 저는 보통 싸울 때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은 제 아내와 제가 실제로 다투고 갈등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싸우면 위층으로 올라가 문을 닫고 나서 다투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과 떨어진 곳에서 다투죠. 지금은 그게 현명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부모로서 하는 게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갈등 해결 방법을 보여주고 그들 앞에서 하는 게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보지 못하도록 따로 해서 부모가 싸우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는 게 좋은 일일까요? 제 아이들은 그런 걸 잘 알지만, 저는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올해 반에 있는 한 소녀가 말하길, 자기 집에서 부모님이 자기 앞에서 싸우셨는데, 어렸을 때는 항상 내가 싸움을 일으킨 건가 하고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많이 지고,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자기가 일으킨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종류의 일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부모가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자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에 대해 아는 건 부적절합니다. 대학생인 당신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도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전체 종류의 것들, 이 경우 숫자 변화, 두 명의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의 귀신 들린 사람은 부분/전체 종류의 것들입니다.

Y. 타이밍 변화-열두 제자를 보내다 [87:22-91:07]

I: Y-AB 결합; 87:22-98:40; 공관적 차이점, 3부

이제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타이밍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이것의 한 가지 특별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성전 정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뒤집고, 상인들을 쫓아내고, 비둘기들을 여기서 내쫓는 성전 정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그것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의 바로 시작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에 대한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예수가 말씀이라는 것, 즉 로고스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예수께서 상을 뒤집습니다. 그런 다음 요한복음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그가 하는 첫 번째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성전 정화 이야기는 예수가 성전에 올라가서 마지막 주, 수난주간,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성전 정화를 합니다.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어떨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무화과나무를 정죄하시고, 무화과나무는 즉시 시들지만,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자 무화과나무는 다음 날 시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작은 시간적 차이입니다. 우리는 시간적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에 있었나요, 아니면 끝에 있었나요? 이것은 무화과나무의 시들음입니다. 예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그 후에였거나, 아니면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셨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무화과나무가 즉시 시들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나무가 시드는 것은 다음 날입니다. 좋아요. 이 시간적 차이는 어떨까요? 여기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한 번 봅시다. 네, 먼저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다루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모순이라고 말하는 것 입니다 . 하나는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보내시고, 다른 하나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 아시다시피, 그냥 나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주인의 몫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0:10과 마가복음 6:8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꽤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반복해서 보내셨을까요?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다양한 맥락에서 보내셨을까요? 그래서 한 번은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한 번은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그가 갈릴리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로 가려면 그곳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은 데카폴리스 지역으로 갈 것이고, 거기서 지팡이가 필요할 거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 중 일부에게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말하고, 일부에게는 지팡이를 가져가지 말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을 두 개의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시나리오가 있고, 그는 한 무리에게는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말하고, 다른 무리에게는 지팡이를 가져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같은 사건에서요. 아니면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보내셨고, 다른 곳에서는 일흔 명을 보내셨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보내셨고, 매번 다른 조언을 하셨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실제로 모순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2. 성전 정화 서론: 스토리텔링의 변화 [91:07-95:20]

이제 성전 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지팡이를 가져가고 가지 말라고 했고, 한 사람에게는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했고 다른 사람에게는 지팡이를 가져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케네스 콘서트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두 목격자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이 사고를 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번째 목격자는 경찰에 보고하는 방식입니다.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스가 있었고, 버스가 길을 따라 내려왔고, 여자는 전신주 옆에 서 있었고, 버스가 전신주에 부딪히고, 여자를 던지고, 여자를 때렸습니다. 버스가 전신주에 부딪히고, 여자를 때리고, 여자를 던졌고, 여자는 다쳤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전신주에 부딪히고, 여자를 때리고, 여자는 다쳤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한 명의 목격자가 본 것입니다.

두 번째 증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증인은 그 여성이 차에 타고 있었고, 차가 T자형으로 들이받았고, 그녀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차에서 튕겨져 나와 즉시 사망했다고 말합니다. 좋아요, 그녀는 차에 타고 있었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치여 T자형으로 들이받았고, 차에서 튕겨져 나와 즉시 사망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들 중 어느 것이 사실일까요? 아주 다른 이야기들이죠, 그렇죠? 아주 다른 이야기들이죠. 하나는 전봇대에 치여 죽지 않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즉사하고 차에서 튕겨져 나갔습니다. 좋아요, 두 가지 다른 이야기인데, 두 증인이 다른 것 같고, 이야기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전체 이야기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복잡합니다. 이걸 어리석은 말이지만, 인생은 이야기보다 더 복잡합니다.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좋아요, 두 증인, 한 증인은 전봇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버스에 치여 다쳤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차를 세우고 그 여성을 태워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남자가 그녀를 병원에 데려갈 때, 그녀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그 남자가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는 동안 교차로를 지나가면서 T자형 충돌을 당했고, 그녀는 그의 차 안에서 튕겨져 나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어느 증인이 옳았을까요? 두 사람 다 옳았습니다. 문제는 이야기가 처음에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야기가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시간 순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올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야기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우리는 일어난 일의

일부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일부만 보고 있습니다 . 우리는 상황의 일부만 보고 있고, 항상 전체 상황을 알지 못하므로, 이런 큰 판단을 내리는 데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모순, 보세요, 이것은 모순되고, 그는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했고, 지팡이를 가져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거기에 없었으므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 그는 그들을 두 개의 다른 지역으로 보냈습니까? 그는 한 번은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했고 다른 때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까? 당신은 거기에 없었으므로 가지 마세요. 성경이 항상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증명되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 갈등이 있는 곳에서는 "나는 증인을 믿는다. 알다시피, 나는 성경을, 진실을 백 번, 백만 번이나 봤고,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종류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삶은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사실,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에게 넘어가서 미안하지만 , 요한은 우리에게 "내가 예수가 행한 모든 것을 기록한다면, 세상의 모든 책이 그것을 다 담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물론, 당신은 예수가 말하고 행한 것의 일부만 얻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런 종류의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AA. 성전 정화의 네 가지 다른 측면 [95:20-98:40]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성전 정화에 대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상을 뒤집는 이 성전 정화는 네 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복음서에서 그것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한 다른 서술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각 복음서에서 성전 정화 이야기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각 복음서 저자에게 성전 정화는 어떻게 기능합니까? 그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성전 정화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는 어떻게 이야기를 구성하고 그 맥락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성전 정화 이야기를 종교적, 사제적, 또는 성전의 순수성 같은 방식으로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순수성이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사회 정의 방식입니다. 예수가 들어와서 탁자를 뒤집고 성전을 정화하여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현명한 교사이고, 그가 와서 순례자들이 와서 그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식은 예수가 탁자를 뒤집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구성합니다. 이것은 그의 성전이며, 그는 메시아 왕으로서 그것을 정화하고 있으며, 그가 정화하는 성전을 재정의합니다. 성전은 그의 몸의 성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가 중 한 명이 이 성전 정화를 예언적 선포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우라"는 예수가 이 예언적 종류의 선포에 참여하고 나서 예언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거부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거부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은 예수를 거부합니다. 이제, 그가 예언을 하는 성전 지역에서-사실 예레미야, 성전에 있던 사람, 그는 이러한 예언을 말했고 사람들은 그를 통곡하고 때렸습니다. 예레미야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예언을 한 다음 거부당하고 예레미야처럼 성전에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빌론이 와서 그 장소를 파괴할 것이라는 이러한 예언을 하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모두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때렸고 그러면 당신이 보게 되는 것은 기원전 586년에 느부갓네살과 함께 성전에 대한 이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와서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성전을 파괴합니다.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이 와서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그것을 파괴하고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당신은 같은 것을 얻습니다. 그는 와서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서기 70년에 티투스 와 로마인들이 들어와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전 정화의 이야기가 네 가지 다른 방식으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것을 펼쳐 보죠.

AB. 마가복음: 선지자의 거부 [98:40-104:23]

J: AB-AE 결합; 98:40-112:48; 공관적 차이점 4부

이제 마가가 성전 정화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살펴보세요. 그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고, 성전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은 열매가 없고 열매가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성전이 정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 11:15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고 그 결과 군중이 놀랐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군중이 있었고 로마 청중이 놀랐고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고 군중은 놀랐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죽이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선지자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를 거부했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고, 두 가지 매우 다른 반응이 있었고, 그런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시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1장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시 나가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화과나무가 저주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무화과나무가 시들어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마가복음은 그런 다음 일종의 봉투나 필립스 박사가 말했듯이 포함을 구성합니다. 무화과나무가 저주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무화과나무가 시들어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 다음 무화과나무는 책받침처럼 성전 정화 이야기를 캡슐화하여 주로 선지자가 거부당하는 요점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선지자로 성전에 들어오셨고 그는 거부당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시들어지는 것은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이며, 이스라엘이 메시지를 거부하면 무화과나무가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예언적 거부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6:7과 예레미야 7과 더 일치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것들을 내 집에서 치우라"와 "내 아버지의 집"과 "도둑의 소굴"과 같은 인용문으로 구성합니다.

이제 다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기억하시겠지만, 그것은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성전 정화와 성전 지역의 메시아적 회복이라는 개념을 묘사할 것입니다. 그러니 문맥과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성전 지역으로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거기에 도착하십니까? 그는 나귀를 타고 계셨고, 사람들은 모두 "호산나, 호산나, 왕께"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려주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종려주일에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다윗의 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성전에 들어오시고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바로잡는 메시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21장 12절에서 그는 상을 뒤집어서 그들을

내쫓습니다. 호산나가 계속되고, 예수는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상을 뒤집고, 성전을 정화하고, 그러면 메시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메시아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고쳐야 하고, 예수가 행한 모든 치유가 있고, 다윗의 아들,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어린이들의 입술에서 찬양을 정하셨습니다"라고 예수가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상을 뒤집고, 메시아적 회복, 예수가 사람들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깨진 것을 가져다가 고칩니다. 메시아는 사물을 원래대로 회복합니다. 예수가 여기 있을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왕국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왕입니다. 그는 메시아적 통치자이므로 그는 성전을 정화하고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그는 왕국을 지금으로 가져옵니다. 이것은 매튜슨 박사가 자주 말했듯이 "이미 왔지만 아직은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을 고치고 성전을 회복하고 정화하면서 이미 여기서 그것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메시아적 회복입니다. 절름발이들이 치유되고, 외부인들이 데려와지고, 이것이 메시아적 왕국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당신은 지상의 천국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성전 정화로 묘사합니다. 외부인들이 데려오지만, 내부자들은 반대자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사소한 역할입니다.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무화과나무가 시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무화과나무가 여기서 요점이 아닙니다. 그는 메시아적 회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성전 정화와 분리되어 있고, 오히려 무화과나무는 마태복음에서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무화과나무를 이런 것들과 연관시켜 사용하지만, 그는 그것을 다른 기능에 사용하고, 예수님의 성전 정화가 실제로 메시아, 메시아적 회복이며, 특히 사람들의 치유를 특징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AC. 루크: 가르치는 장소 [104:23- 108:04]

이제 누가복음에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누가복음에서 흥미로운 점은 19장 45절 이하에서 누가는 성전을 정화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나요? 예수님은 상을 뒤집으시지만, 사람들을 고치고 이 메시아 왕국에서 일을 하는 대신, 왕국을 엿보게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애도하는 예수님의 맥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을 넘어 성전 지역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을 넘어오시면서 울며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어미 닭처럼 너희를 병아리로 품에 안고자 하였으나 너희가 그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께서는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길을 잃다 프로그램에서 보셨겠지만, 예수께서 울었던 교회인 도미누스 플라비트입니다 . 교회 자체는 눈물 모양이고, 키드론 계곡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올리브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한 애가가 있고 이것은 예고입니다. 이 예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예루살렘은 멸망될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는 그 사건을 무시하고, 환전상, 비둘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 비둘기를 데려가는 것에 대한 세부 사항이 없고, 비둘기가 특별 대우를 받았고, 환전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는 성전 정화 사건을 무시합니다. 왜 그는 성전 정화 사건, 상을 뒤집는 것과 같은 일을 무시합니까? 상을 뒤집고, 세리와 비둘기를 몰아내고, 비둘기를 특별 대우하는 대신. 그것은 예수를 가르치는 기능을 가진 현인으로 본보기로 여겨지고, 예수의 가르치는 기능을 통해 청중이 나뉩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가복음에서 교사입니다. 그는 메시아적 교사이고, 현인 교사입니다.

저에게는 매우 흥미로운데, 올해 저는 루가와 이런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루가는 예수님이 열두 살 때, 그들이 그를 성전으로 데려가서 바 미츨바를 치르게 한 후, 그들이 떠나고 예수님을 남겨두는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첫 번째 남겨진 사람들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겨집니다.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떠나고, 갑자기 그들은 이틀이나 사흘을 나가서 "앗,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성전 지역으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예수님은 거기에 앉아서 성전 지역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모가 다가와서 “이봐요, 우리는 당신을 걱정해서 죽겠는데, 뭘 하고 계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는 아버지 일을 해야죠. 맞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일은 성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제 생각에 누가복음 2장이나 3장에서, 성전에서 선생님이로 예수를 시작합니다. 그럼 누가는 여기 19장에서 어떻게 끝냅니까? 그는 책의 마지막에 와서, 예수가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 한번 메시아적 선생님이 되는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30~32세의 사람으로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가 예수가 열두 살 때와 예수가 수난주간 직전에 있을 때, 예수를 현인으로 묘사하는 깔끔한 방식입니다. 예수는 현명한 선생님입니다. 그게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성전 정화에 대한 같은 이야기를 하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세부 사항 중 일부를 축소합니다. 대신 누가는 예수의 가르침을 현인으로 묘사합니다.

서기 108:4-110:25 요한: 성전을 건축하여 성전이 된 몸 [108:4-110:25]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상을 뒤집고 성전을 깨끗이 하셨지만,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성전을 일찍 깨끗이 하셨습니다. 요한은 성전을 깨끗이 하셨으므로 요한복음 2장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는 모든 상을 뒤집으셨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사흘 안에 헐어라. 내가 그것을 세우겠다.” 그는 어떤 성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상을 뒤집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안에 그것을 세우겠다.” 그는 자신의 몸이라는 성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상을 뒤집으실 때,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에서 자신의 몸이라는 성전으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 사흘 안에 죽음에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제기한 문제, 사흘 안에 죽음에서 살리실 것이라는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야바 앞에 섰을 때 재판을 받으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나서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발한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말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전을 파괴하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분이 자신의 몸의 성전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하지만 그는 부활 후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합니다. 자신의 몸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의 성전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복음서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에서 부활했을 때 그의 제자들은 “좋아요, 그가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해했고, 그래서 요한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를 단락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요점은 성전이 그의 몸의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처음에 그것을 바로잡았고, 요한은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을 성전에 두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성전은 바로 그의 몸의 성전이었습니다.

AE. 성전 정화에 대한 네 가지 관점 [110:25-112:48]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누가는 현명한 교사입니다. 마가는 예언적 거부입니다. 마태는 메시아 왕국이고, 요한은 그의 몸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자에 따라 성전 정화 이야기를 네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각 저자가 성전 정화 이야기를 만들어서 다른 맥락에 놓고 다른 풍미를 주는 방식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각자가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농구 경기에서 심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심판이 한 명만 있는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심판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나 세 명입니다. 다른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심판은 누군가가 일어나서 한쪽에서 맞았고, 다른 사람은 그가 엉덩이로 그를 때린 것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심판은 보았습니다. 심판을 본

적이 있다면, 심판이 코트의 다른 측면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이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만, 그들은 심판과 마찬가지로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농구 경기에서 여러 심판이 필요하므로, 복음서 기자가 세 명이라는 뜻인가요? 그들은 같은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많은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존은 매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심지어 세 사람 중에서도, 그들은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고,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관복음 문제의 일부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Kelley Chang-Fong이 필사함

Ben Bowden 편집

Ted Hildebrandt가 편집한 Rough